

오늘의 계시판

남도소리상설무대 신춘국악대 공연 12일(수) 광주문화회관

행사 (11일) ▲북부소방서, 응급구조술 교육 = 오전 9시30분 광주교도소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실시. 269-8816
▲2006 목포해양문화축제 = 오후 5시 목포 평화광장. 남해안 해양민속 초청공연 '목포 강강술래', 오후 7시 바다클래식음악회 '내고향 남쪽바다'.
▲가수 이난영 공연 개장식 = 오후 2시 목포 삼학도.
▲공산면민의 날 행사 = 오전 10시 나주시 공산중학교.
(12일) ▲2006 목포해양문화축제 = 오후 4시 30분 목포 평화광장. 목포 각설이공연. 오후 5시30분 목포 마담극 '아빠의 청춘'. 오후 2시 신안비치호텔 유람선 선착장. 범선 항해체험 프로젝트.

▲삼한지 '주몽' 드라마세트장 준공 및 제작 발표회 = 오후 1시30분 나주시 공산면 드라마세트장.
▲시와 무용과 음악의 대화주 = 오후 4시·8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김원국·곽우영·김근영·손이 등 출연. 시낭송·무용·겹은 피아노·영원한 사랑·그리움은 바람처럼 외 연주.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 12일(수) 오후 8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조성환·박흥우·민숙연 등 출연. 바흐 '마태수난곡' 연주.
▲남도소리상설무대 신춘국악대공연 = 12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송순삼·강현복·박은아·문명자·안희봉 등 출연. 가야금병창·판소리·한국무용·사물놀이·남도민요 등 공연.

전시 ▲광주시립미술관 미술단체 초대전 '남도 문화의 정신을 찾아서' = 2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광주·전남 문인협회 소속 중견 작가 30명을 엄선했다. 모두 60여점의 근작을 선보인다.
▲서양화가 박수만씨 창작지원전 = 19일까지 광주 롯데화랑. 박씨는 '미(迷)·인(人)·도(道)'를 주제로 우화적이고 만화적 감성을 자아내는 작품을 선보인다.
▲인도세밀화전 = 5월7일까지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보성군 대원시 티벳 박물관이 소장한 인도 세밀화 50점을 빌려 전시한다. 인도 민속용품도 전시된다.
▲우리종이 공예전 = 11일까지 왕인 전통종이공예관. 액세서리와 조명, 의상 등 한지로 만들어진

진 작품 100여점이 선보인다. 전통 종이만들기 시연 등 참여행사도 열린다.
▲서남수 한국화전 = 12일까지 광주나인갤러리. 수묵과 채색으로 조형성을 표현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최상중 서양화전 = 12일부터 23일까지 신세계갤러리. 광주신세계 창립 11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지난해 12월 작고한 서양화가 최상중씨의 유화 23점이 전시된다.
▲강요배 개인전 = 12일부터 25일까지 남방갤러리. 제주 민중항쟁사를 주제로 연작을 발표하고 제주의 자연을 서정적으로 표현해온 강요배씨가 '땅에 스민 시간'을 주제로 서양화 39점을 전시한다.

역사속의 오늘

▲나폴레옹, 무조건 퇴위에 서명, 엘바섬으로 귀양(1814)
▲트루만 미 대통령,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해임, 후임에 리치웨이 중장(1951)

오늘의 유머



▲담배미워



▲추월도 못해, 무서워서



▲말해줄까? 말까? <네이버 블>

2005 바둑미스터스 삼국지. Go board diagram with numbered stones and a legend for '참고도 1' and '참고도 2'.

결정적 '첫발질' 본선 19국 제 10보(148~165). White 조상훈 (8단) (타이젠) vs Black 이상훈 (8단) (엠게임). Includes a Go board diagram and analysis text.

바둑소식. 오규철, 한국바둑리그 본선에. 광주 바둑을 이끌고 있는 오규철 9단이 최근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열린 2006한국바둑리그 예선 마지막 대국에서 최원용 4단에게 흑 반집승을 거두고 본선에 진출했다.

News Quiz (뉴스 퀴즈). 7. 광주에 연고를 둔 KIA 타이거즈를 비롯, 8개 팀이 8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이 종목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향한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신화의 열기를 이어 10년만에 400만 관중을 돌파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슨 종목일까요?
①프로 축구 ②프로 야구 ③프로 배구 ④프로 농구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광주무등파크호텔 1일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1일(음 3월 14일 庚午). 36년생 보고 또 보고 주변을 살펴봐라. 48년생 직업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60년생 건강과 재물은 같은 편이다. 72년생 사무실과 가정, 남편과 자녀까지 모두를 살펴봐라. 84년생 무리한 변화가 예상되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37년생 처와 재물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49년생 승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화해하며 지내라. 61년생 직장과 남편에게 변화가 온다. 73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안심은 이르다. 85년생 소신껏 추진하라.
38년생 좋은 계획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 50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주의해서 결정하라. 62년생 길보다 흙이 더 많으니 모든 일에 주의하라. 74년생 돈은 들어오나 쓴 구멍 막기가 바쁘니 계획적인 소비가 중요하다.
39년생 욕심을 버리고 만사에 주의하면 길사가 있다. 51년생 여막기가 발동하니 장거리 여행은 길하다. 63년생 구설 시비 등 사소한 일이 괴롭힐 수도 있으니 주변을 살펴봐라. 75년생 횡재수가 보이니 복권을 구매하라.
40년생 뜻은 높으나 기회가 안 보인다. 52년생 인생의 지혜를 후배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라. 64년생 안정을 취한 연후에 생각과 행하라. 76년생 직장에서 뒷사람에게 인정받고 아내의 사랑이 행한 만큼 있다.
41년생 예측 불허의 실물수가 보이지만 주의하면 비켜간다. 53년생 신사가 생기기 앞뒤를 살펴라. 65년생 요추에 신체적 불편이 나올 수 있으니 무리는 삼가라. 77년생 오늘 할 일은 오늘에 끝내라 내일이면 불리하다.
42년생 시작은 했으나 쉽지는 않다. 54년생 시비 단단 분심이 발생하나 큰 손실은 없다. 66년생 지혜는 재사를 순조롭게 만드니 뜻밖에 지혜를 빌려라. 78년생 腎虛腰痛 무리하게 힘쓰면 허리가 아프다.
43년생 주변을 친한하면 자신도 올라간다. 55년생 부부간에 예의를 지키며 사랑도 지켜진다. 67년생 제일 편하고 소중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 79년생 좋은 이성의 만남이 예상되니 준비하고 있이라.
44년생 눈물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나 가족을 살펴봐라. 56년생 다른 사람의 불평을 살펴보면 내 불평도 사라진다. 68년생 배우자 덕은 본인 스스로 만든다. 80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할 이성이 보인다.
45년생 지름은 발생하나 오히려 수명이 더 크다. 57년생 이웃의 도움으로 새 생활이 시작 된다. 69년생 작은 일도 꼼꼼하게 성급히 야속된다. 81년생 새 인생의 동반자가 가까이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마라.
46년생 기쁨은 크고 아쉬움은 작다. 58년생 뜻밖의 행운이 있으나 결과가 크지 않다. 70년생 손윗사람과 돈거래는 신용만 잃는다. 82년생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은 버려라 큰 돈이 들어온다.
47년생 먼저 베풀어라 그 보답은 클 것이다. 59년생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으니 신뢰를 지켜라. 71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기 바란다. 83년생 부모에게는 효도를 자식에게는 가정교육을 시키라.

굿모닝 잉글리쉬 <625> It's no trouble at all 조금도 귀찮지 않아요. A: Could you take a look at this? I think it's broken. B: let me see. A: Sorry to trouble you. B: It's no trouble at all. A: 이걸 봐줄 수 있나요? 고장난 것 같아요. B: 제가 봐드릴게요. A: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B: 조금도 귀찮지 않네요. take a look = have a look I think it's broken. = I think it's busted. Let me see. = Let me take a look = Let's have a look. trouble = bother

오하이오 니혼고 <625> じゃあ、早(はや)く行(い)きましょうよ 그럼 빨리 갑시다. A: 横浜(よこはま)の□(えき)ビルの屋上(おくじょう)にフルーツパーラーができたんだって. B: 屋上(おくじょう)だから、見晴(みは)らしがよさそうね. A: それもそうなんだけど、その「フルーツポンチ」が、また、格別(かくべつ)らしいわよ. B: じゃあ、早(はや)く行(い)きましょうよ. A: 요코하마역 건물 옥상에 후루츠파라가 생겼다고 해. B: 옥상이니까 전망이 좋을 것 같군. A: 그것도 그렇지만, 거기 '후루츠펀치'가 또한 각별한 것 같아. B: 그럼 빨리 갑시다. □(えき)ビル: 전철역과 백화점 등의 건물이 같이 있는 곳. フルーツパーラー: (fruit parlour)일본식 영어, 과일가게를 겸한 찻집. 見晴(みは)らし: 전망. よさそうだ: 좋을 것 같다. 格別(かくべつ): 각별(보통의 정도와는 다르다)

니하오 쑹구위 <371> 满脸双眼皮 얼굴 가득 주름 투성이다. A: 我的双眼皮效果怎么样? B: 你的双眼皮效果怎么样? A: 我的双眼皮效果怎么样? B: 你的双眼皮效果怎么样? A: 내 다크아이라 효과가 어때? B: 다크아이라도 눈썹이 눈썹 주름투성이야. 双眼皮 (Gānlǎng) 다크아이라, 눈썹 주름투성이다. 皱纹 (Wǔzhōu) 주름. 满脸 (Mǎnmiàn) 온통, 가득하다. 双眼皮 (Gānlǎng) 눈썹

한자 이야기 <242> 弑害(시해) 죽일 시, 해할 해. 시해(弑害)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죽인 경우에 사용된다. 즉 신하나 자식이 군주나 아버지를 죽인 것이다. 시(弑)는 살(殺) : 殺의 생각형) + 식(式) : (音符)으로 구성된다. 해(害)는 면(𠂔) : 쇠유는 것) + 고(古) : (머리)로, 뒤집어 씌워 방해를 하거나 진행을 그치게 함이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또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등에 사용한 '시(弑)'라는 표현은 본래 제후(諸侯)가 타살(他殺) 되었을 때 사용하였다. 같은 타살이라도 대부(大夫)일 경우는 '살(殺)'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죽은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어 처벌화시키려는 의도이다. 이런 표현법은 공자가 엮은 노(魯)나라 역사책인 '춘추(春秋)'에서 처음 보였기 때문에 춘추필법(春秋筆法)이라고 한다. 즉 어떤 특정한 표현 속에 일정한 의미를 담아 역사가(歷史家)의 주관적 평가나 견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역사기록 방법이다. 이후 이런 춘추필법은 한문문화권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런 표현들의 의미를 알고 글을 읽으면 보다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